



HanInPost

한인포스트

주한인도네시아 대사에 우마르 하디 LA총영사 내정

우마르 하디 신임대사 내정자는 유럽 미주 외교관 출신
1월 31일부로 존 아 브라세피오 주한대사 임기 마쳐

존 아 브라세피오 (John A Prasetyo)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 임기가 1월 31일로 마치고 현 인도네시아 LA우마르 하디 (Umar Hadi, 만 50세) 총영사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취임할 것이라고 외무부는 밝혔다.

우마르 하디 대사 내정자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 국회에서 22명의 대사 후보 심사를 통과하고 조코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Kumparan.com은 지난 1월 3일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대사 자격 검증 통과 이후 국회 인증서를 조코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현재 외교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부장관은 “신임 대사 내정에 해당국에서 거부한 국가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존 아 브라세피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임기가 1월 31일 마친다”라고 말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신임대사인 우마르 하디 대사 내정자는 1월 31일 현재 미국 주재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로 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내정자는 1967년 보고르에서 태어났다. 미국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마르 하디 대사 내정자의 주요 이력은 1996년 - 2001년 주재스위스 제네바 인도네시아 대사관 제2비서관, 2001년 - 2005년 외무부 장관실 공보 및 대중매체



<사진. 주한 우마르하디 신임대사 내정자>

부장, 2005년 - 2009년 외교부 부장, 2009년 - 2012년 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부대사, 2012년 - 2014년 외무부 서부 유럽 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4

(자료참조. Kabar.news.com, Fajar.co.id, Kumpar.com, detik.news.com)

**KONSULAT JENDERAL REPUBLIK INDONESIA
DI LOS ANGELES, AMERIKA SERIKAT**

BERANDA | TENTANG KAMI | LAYANAN | BERITA DAN AGENDA | HUBU

Beranda / Tentang Kami / Daftar Pejabat dan Staff

Daftar Pejabat dan Staff

Konsul Jenderal

KONSUL JENDERAL
Umar Hadi

<1월 31일 현재 인도네시아 LA우마르 하디 (Umar Hadi, 만 50세) 총영사 나와 있다. 홈페이지 발췌>

트럼프, 이슬람 7개국 입국금지… 외교장관 "반미주의 시발점 우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반미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미국우선주의는 미국과 다른 국가 관계에 악영향 우려

트럼프 달려 불확실성이 주가와 환율에 영향



인도네시아는 트럼프가 서명한 입국금지 7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교부 Retno Marsudi 장관은 미국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Retno Marsudi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약 2억 2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정책이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으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반미주의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우선주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1

월 30일 아시아 주가는 내려가고 미국 달러는 미끄러졌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외로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의 정치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이슬람 국가 7개국, 즉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의 난민들은 90일 동안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한편 시리아 난민은 무기한 금지됐다. 관계자는 이번 금지가 반테러 조치이자, 특정 종교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영주권 보유자가 이번 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인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언급된 7개 국가로부터의 이민자를 중 이미 영주권

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걱정은 이번 정책이 테러리즘과 이슬람을 연관지었는데, 이는 이슬람 급진주의에 반하는 국제적인 싸움과 관련하여 잘못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중동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재건하고자 노력했던 버락 오바마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들 내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려는 관심이 매우 적어 보인다.

<출처: Indonesia-investments>

더 빨리 더 시원한 에어컨 절전형 에어컨

절전형 폴리트론 에어컨은 7분만에 실내온도 18도까지
1/2PK 에어컨도 ‘최고쿨링엔진’ 장착으로 40% 더 빨리 시원하게
무더운 날씨를 더 빨리 더 시원하게 해 드립니다.



*POLYTRON 실험결과 450VA 전기에도 작동됩니다.
한국인 데스크●(개인고객)-021-45869199●(법인고객)-Mr. Alex Moon 0812-1086-8615

POLYTRON
Memang Canggih

조코위 대통령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



1월 25일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경기 침체와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많은 요소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뒷받침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기업 경영진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

어 우린 2분기에 5.18%, 3분기에 5.02% 성장할 수 있다.

다른 G20 국가 멤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 우리의 성장률은 인도와 중국에 이은 세 번째에 랭크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은 저조하거나 떨어지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좋은 상태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통제 하에 있고, 2016년에는 3.02%로 낮췄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9%로 오르면 성장을 6%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

고 덧붙였다.

출처: antaranews.com

각종 설문조사 아후후보 1위 탈환



각 방송사 TV토론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보름 앞둔 설문조사에서 아후 후보가 1위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2017년 자카르타의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 주지사 후보자인 바수키 (Ahok Tjahaja Purnama)와 디자릇 사부 히다트 (Djarot Saiful Hidayat)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2위에는 Anies Baswedan-

Sandiaga Uno, 3위는 Agus Harimurti Yudhoyono-Sylviana Murni가 각각 차지했다고 kompas.com이 보도했다.

포퓰리센터 (Populi Center) 가 지난 29일 발표한 설문 조

사에 따르면 Ahok-Djarot 후보는 36.7%로 1위를 달리고 있고, Anies-Sandi 후보가 28.5%

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Agus-Sylviana는 후보자 중 가장 적은 2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로 자카르타 전역 6개 지역에서 6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오차는 약 4%이고 신뢰도는 95%이다.

또한 1월 25일 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hok-Djarot 팀은 응답자의 38.2%, Anies-Sandi는 23.8%, Agus-Sylviana 23.6%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80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 (SMRC)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Ahok-Djarot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상대로 34.8%의 지지를 얻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Anies-Sandi와 Agus-Sylviana는 유권자의 26.4%와 22.5%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장 선거를 단일 통폐합을 목표로 단계별 선거를 시행중에 있으며, 오는 2월 15일 2차 자치단체장 선거를 7개 주, 76개 군, 18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기자:자카르타포스트)

스리물라니 재무부장관, 조세사면 마지막 단계.. 자산 신고하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재무부 스리 물라니 장관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자산을 신고하라”라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고 Kompas신문이 1월 17일 보도했다.

이번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제3단계에서는 국내자산 신고의 경우 세금 5% 부과, 국외자산 신고의 경우에는 세금 10%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인에는 10억 루피아 미만의 신고 자산에 0.5%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루피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자산에 세금 2%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은 연간 총소득이 48억 루피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조세사면 프로그램 제1단계에서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인은 393, 358명이다. 그 중에서 55,786명 해당하는 14.18%는 본인 명의로 납세 했고, 14,818명에 해당하는 3.77%는 회사명으

로 납세했다.

이어 조세사면 프로그램 제2단계에서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인들은 233,000명이다. 그 중에서 84,155명에 해당하는 36.12%

는 본인 명의로 납세했고, 28,677명에 해당하는 12.31%는 회사명으로 납세했다.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헌법재판소장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헌법재판소장이 1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KPK)로부터 체포됐으며 27일에 KPK 청사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어 KPK는 기업인 바수끼 하리만과 부하직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했다. 과거 KPK는 전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아킬 모흐타르를 체포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가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가 체포된 사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Kompas.com이 1월 27일 보도했다.

Kompas.com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족과 동물건강에 관한 법률(UU Nomor 41 Tahun 2014)이 재검토되고 있다. 이 법률은 쇠고기 수입업체들에게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바수끼 하리만은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헌법재판소장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에게 가족과 동물건강에 관한 법률 (UU Nomor 41 Tahun 2014) 개정을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미화 20,000달러와 200,000싱가폴 달러, 총 21억 5,000루피아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수끼 하리만은 부하 직원 2명을 시켜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소장에게 돈을 주도록 했으나, KPK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이러한 행각이 적발되어 이들은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사령관 “반 빤짜실라 사회단체저항에 대비할 것”

가돗 누르마띠오 (Gatot Nurmantyo)

국군 사령관은 17일 동부 자카르타 찔랑감 국군본부에서 각 군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국군은 반 빤짜실라 사회단체들에 대비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Kompas.com이 1월 17일 보도했다.

가돗 누르마띠오 국군 사령관

은 “국군은 정부를 지지하고 국

가안보를 보장한다”며 국군은 반 빤짜실라 사회단체를 저항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가돗 누르마띠오 국군 사령관은 현재 대중매체로 인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사고방식이 영향을 받았

조코위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Hadi Tjahjanto 장군 임명



조코위 대통령은 2월에 퇴직하는 Agus Supriyatna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하여 Hadi Tjahjanto를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1월 18일 대통령 궁에서 거행된 취임식 직후 Hadi Tjahjanto 신임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2번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한 공군 요원 15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 방위시스템 등 전투기 구입, 또는 공군행정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Hadi Tjahjanto 신임 공군 참모총장은 방위 시스템 강화와 국토 수호를 위해 국군은 현재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된 12개 레이더에서 20개 레이더를 더 구입할 것이며 미국산 F 15 전투기 대신에 러시아산 수호기 35 전투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군 방위시스템 강화는 국토 수호와 함께 불법으로 및 해적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Kompas 1월 19일)

인도네시아 변호사.변리사.관재사 이승민 법률사무소 소송.투자.기업법무.부동산.파산관재.지식재산권

YI SENG MIN & PARTNERS
Advocates. IPR Attorneys. Receivers
Korean. Indonesian. English

yisngmin@centrin.net.id,

yisngmin@gmail.com

Tel. (62-21)525-5959, 527-2422,

Fax. (62-21)527-2423

무료 법률상담
Free Legal Consulting

- 연합회회 : 주일 10시 45분-12시, Jl.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MP. 0816-1911-245

- 한인회 : 목요일 오후 3시-4시, Korea Center 202호실, Tel. (021)527-2422

- Kotra : 금요일 오후 2시-4시, GKBI 빌딩 1209호실, Tel.(021) 574-1522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설날 임례과 화교 총

지난주 토요일은 우리의 설날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날을 ‘Tahun Baru Imlek’ 혹은 ‘Lunar New Year’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신년인사를 건네지만,

중국인들은 ‘공시 파차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공시는 공손할 공에 기쁠 희, 즉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것이고, 파차이는 나야갈 발에 재물 재, 즉 돈 벌려 나가세요’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복 많이 받으라는 걸도 같은 말이겠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복 대신에 “를 넣어 돈을 더 강조하는 인사법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은 설날이 되면 글렌텡(Kelenteng)이나 위하라(Wihara)라고 하는 관제묘를 찾아가 복을 비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

도네시아에서는 이 관제묘를 불교에서 말하는 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절은 아닙니다. 다만 불교 사찰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위하라나 글렌텡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관제묘입니다. 관제묘라는 곳은 장사를 나간 중국인들이 여행 중에 도둑을 만나지 않도록 빌던 곳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동남아 국가들에 지어진 관제묘는 해마다 중국인들이 찾아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요즘은 건강이나 복까지 빌기도 하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관제묘는 거의 모두 붉은색으로 채색되고 있는 기와집으로 중국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엔 온통 황금빛과 푸른빛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와 장비, 엄안, 심지어 을지문덕 장군까지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용 그림이나 조형물도 갖춘 데까지 있는 걸 보면 분명 절은 아니고 관제묘가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은 대개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같은 대도시에 몰려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복 때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중부 자바 스마랑이나 솔로 등에 사는 중국인들은 대개 봉제단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지방 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부 수마트라, 메단, 그리고 중부 수마트라, 잠비와 빨렘방, 벌리뚱(Belitung) 등에 사는 중국인들은 원목 벌채나 주석, 석유개발, 어업 등의 비즈니스가 침체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특히 서부 칼리만탄, 뿐만 아니라 싱까왕(Singkawang)에서는 중국인들은 기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관제묘에 크게 기대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가 태풍의 눈 안파사리 전 KPK위원장 사면

조코위 대통령의 사면으로 18년 형기 중 6년 반 정도만 복역하고 풀려난 안파사리 아자르 전 KPK 위원장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뒤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안파사리(Antasari Azhar) 전 KPK 위원장이 자기를 믿고 기꺼이 사면조치를 해 준 조코위 대통령에게 뭔가 보답하기 위하여 KPU 선관위 정보기술(TI) 도입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과 BLBI 의혹 사건, 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공적자금 지원 의혹 사건, 그리고 Bank Century 구제금융(Bail Out) 지원 등, SBY 전 정권에서 모두 덮어 두었던 거대 금융 부정부패 사건을 밝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모두 SBY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이 이런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하

는 것은 결국 유도요노 전 대통령 정권 당시의 부정부패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코위 대통령 측과 SBY 전 대통령 진영 간에 매우 큰 정치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SBY 전 대통령과 직접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SBY 전 대통령 큰아들을 자카르타 시장 후보에 내세우고 어떻게든 시장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생긴 갈등 같습니다.

</div